

생활권이란 무엇인가?: 기술적 규정의 인식론적 재검토와 ‘관계적 생활권’ 개념들의 제안

What is the Living Sphere? : Epistemological Reexamination and a Relational Framework

권용석 Kwon, Yongseok*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at the epistemological level, how the concept of the "living sphere" (saenghwalgwon, 生活圈) is deployed in Korean spatial policy discourse under the population-decline agenda. Its scope is deliberately delimited: it does not redefine the operational unit of the "planned living sphere," but reopens its categorical premises. The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ly prevailing usage—organized around simulation-based catchment analyses—converges, across heterogeneous methodological lineages, on a tacit ontology of space as functionally partitioned exteriority and subject as averaged mover. By intersecting phenomenological, lifeworld-sociological, and critical-spatial lineages, and by mobilizing literary vignettes and contemporary Korean cases, the paper proposes the "relational living sphere" (gwangyejeok saenghwalgwon, 關係的 生活圈) as a complementary framework organized along three axes: embodied rootedness, relational extensibility, and temporal thickness. Its function is to make quantitative models' ontological premises visible and to specify their division of labor at each stage of the master-planning cycle.

Keywords: saenghwalgwon(living sphere), relational living sphere, spatial sociology, conceptual framework,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reconceptualization

I. 서론

1. 문제 제기

2020년대 중반을 전후로 국내 공간정책 연구 영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의제 아래 ‘생활권 변화의 시뮬레이션 기반 모형화’가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흐름에서 ‘생활권(生活圈)’은 대개 일정 시간거리 내 일상적 서비스(의료·교육·공공행정·상업·여가)에 접근 가능한

공간 범위로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 범위의 형상과 중첩, 시설 도달률, 임계인구, 네트워크 효율을 계산한다. 지방 소멸과 수축, 제한된 재정하에서의 시설 재배치 조건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계량적 장치의 유용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 ‘생활권’은 과연 ‘삶의 권역’인가? 시간거리상 30분 안에 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 ‘삶을 영위하는 세계’가 된다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가? 시뮬레이션 모형이 산출하는

*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Research Fellow,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 kwony@gdi.re.kr

등시선(等時線) 지도는 주체가 공간과 맺는 체험적·관계적·서사적 두께를 얼마만큼 재현하며 얼마만큼 배제함으로써 성립하는가? 배제가 구성의 조건이라면 그 배제된 것이 정책의 규범적 목표—지속가능성, 형평성, 주민의 존엄한 삶—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한국 공간계획 담론에서 생활권 개념은 1972년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래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나 시대마다 내용은 달랐다. 특히 최근 논의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계보(중심지이론적 위계, 시간지리학적 시공간 예산, 네트워크 접근성, 인지도·활동공간 계열)를 활용하면서도 정책적 조작화 국면에서는 대체로 ‘가능적 도달권’이라는 공통점으로 수렴한다. 이 수렴은 정책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개념의 철학적·사회학적 두께를 얇게 깎아내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가 오랜 기간 기술적·공학적 접근을 수행하며 부딪혀 온 의문 또한 이 지점에 있다. 정교한 모형이 산출하는 ‘최적 생활권’이 실제 주민의 삶의 지평과 어긋날 때 해법은 모형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인가, ‘생활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일차적 물음의 재점검인가? 본 논문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데이터 분석 기반 생활권 모형은 출발점에서부터 ‘개념적 단순화’를 감수해 왔으며, 그 대가가 지금 누적되어 정책의 방향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진단이다.

2. 연구 목적과 논지, 그리고 논의의 범위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현행 ‘기술적 생활권’ 개념의 인식론적 전제를 드러내고 그 한계를 철학적·사회학적으로 비판한다. 둘째, 그 비판의 귀결로 ‘관계적 생활권(Relational Living-Sphere)’ 개념틀을 제안한다. 후자는 ① 신체적 정착성(embodied rootedness), ② 관계적 확장성(relational extensibility), ③ 시간적 두께(temporal thickness)의 세 축으로 구

성된다. 세 축은 서로 환원되지 않으며 동시에 계량화에 완전히 저항하지도 않는다. 본 논문의 제안은 측정을 부정하는 인문주의적 반동이 아니라, 측정이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되묻고 방향을 바로잡는 인식론적 발판이다.

본 논문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의 조작적 단위—권역 확정, 임계인구 산정, 서비스 배분 알고리즘—를 직접 대체할 계량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규범 도출은 별도의 실증연구와 조작화 연구의 몫이다. 본 논문의 관심은 그보다 한 층위 상류, 즉 ‘무엇을 생활권으로 부르고 그것을 어떤 존재론적 전제 위에서 다룰 것인가’라는 담론 조건 자체에 있다. 결론에서 제시되는 관계적 생활권 개념틀은 이 담론 조건을 재조정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며 실무 조작화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무한정 유예할 수는 없기에 4장에서 정량모형과 3축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분업·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절차 수준에서 예시한다.

본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통용되는 생활권 개념은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의 층위에서 개념적 축소와 편향을 겪고 있으며, 이 축소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당성을 잠식한다. 문제는 계량모형이 자신의 조작적 정의를 초과하여 ‘생활권 그 자체’를 정의한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그러한 명시적 주장 없이도 정책문서와 계획 실무 담론에서 생활권이 사실상 ‘도달권’과 동의어로 유통되는 관성이 굳어지는 데 있다. 생활권은 도달권이 아니라 체험된·관계된·쌓여온 삶의 권역으로 복원, 다른 말로 ‘재정착(re-rootedness)’되어야 한다.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실증분석이 아니라 ‘개념적 재구성(conceptual

reconstruction)'을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이는 선행 개념의 계보를 추적하고 그 전제를 드러낸 뒤 대안 이론자원을 대비(對比)하고, 문학 텍스트와 현대 도시적 삶의 사례로 이론의 감각적 타당성을 점검하며 최종 개념들과 실무 접합 지점을 예시하는 작업이다. 문학 인용은 '삽화' 수준이며 박완서의 서울 현저동, 이문구의 관촌, 황석영의 삼포는 각각 다른 결의 생활권을 다룬다. 세 텍스트가 1970~1990년대 맥락에 놓여 있으므로 이론적 논의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의 의미성, 플랫폼 배달 등으로 재편하는 오늘의 도시 일상을 함께 참조함으로써 시대적 편향성을 완화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한국 공간계획사에서 생활권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최근 기술적 규정이 공유하는 인식론적 전제를 드러낸다. III장은 이 재검토에 필요한 이론자원을 세 계보—현상학(후설·하이데거·메를로-퐁티·볼노프·바슐라르), 생활세계 사회학(퇴니스·짐멜·슈츠·하버마스·퍼트남·올든버그), 비판적 공간사회학·인간주의 지리학(르페브르·드 세르토·하비·매시·소자·투안·렐프)—로부터 삼각측량 방식으로 동원하며, 각 계보 말미에 문학 삽화로 이론의 감각적 타당성을 점검한다. IV장은 세 계보를 종합하여 관계적 생활권의 세 축과 결합 원리, 도시기본계획 프로세스와의 접합, 한국 공간재편의 함의를 정리한다. V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II. '생활권' 개념의 계보와 인식론적 전제

1. 한국 공간계획에서의 생활권

'생활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근대 도시계획 용어(生活圏, せいかつけん)의 차용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 공간계획에서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전후한 시

기다. 당시 계획은 저점개발 전략과 함께 중심지이론(Christaller 1933/1966)의 위계적 공간관을 받아들이면서 '대생활권-중생활권-소생활권'의 중첩 구조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생활권은 사실상 배후지(hinterland)와 중심지 서비스 범위를 결합한 개념이었다. 이 기능주의적 규정은 이후 세부화·고착화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삶의 질(quality of life)' 담론과 광역생활권 논의가 더해지면서 일정한 다원화를 경험한다. 오병록(2012)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계획 실태를 이론적 이상과 실제 계획의 괴리 관점에서 분석한 것도 이 시기다.

2010년대 이후 지방 쇠퇴와 인구감소 의제가 부상하면서 생활권은 다시 조각작·계량적 개념으로 수렴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스마트 축소' 및 '컴팩트-네트워크' 연구(성은영, 임유경, 윤주선 2015; 권규상, 다무라 후미노리, 김영룡 2018; 신지영 2021), 2019년 농촌협약 도입과 결합된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은 생활권을 '시간거리 기반 도달권'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황명화, 임은선, 이보경, 이보라 외(2025)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활용방안 연구는 이 담론이 최근 어떻게 정책 시뮬레이션으로 결정(結晶)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15분 도시(15-minute city)' 담론(김형준 2023) 역시 이질적 이론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조작성·국면에서는 유사한 도달권 언어로 번역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용균(2024)의 비판적 고찰은 근접성 중심 접근이 도시문제를 물리적 설계와 기능적 구성으로 환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논문과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2. 최근 생활권 연구의 방법론적 지형

현행 생활권 모형이 기대는 이론적 장치는 단일하지 않다. 최근 연구의 지형은 다음 네 계보의 중첩과 병

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위계적 배후지 관점의 잔재다. 중심지이론에서 유래하는 위계적 공간관은 국토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의 ‘거점-배후’ 언어에서 보듯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최근 실증연구는 위계보다 다핵·복합적 결절 구조를 다루는 방향으로 이동했으므로 오늘날의 생활권 논의를 곧바로 ‘중심지이론의 연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둘째, 네트워크 이론적 접근성 분석이다. 최근 다수의 국내의 연구는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접근성 지수(중심성, 매개성, 근접성)로 생활권을 산출하며, 관계적·연결적 공간관을 전제하고 도로·대중교통·보행 네트워크의 실제 위상(topology)에 기초해 도달권을 추정한다. 국내에서는 통행네트워크 분석으로 생활권을 설정한 연구(강재원, 조진희, 심용주, 박선옥 외 2022)와 도시권 특성으로 축소를 분석한 연구(신학철, 우명제 2022)가 이 계보에 속한다. 개념적으로 위계에서 네트워크로의 이동이 있지만, 실제 조작화에서는 여전히 ‘평균적 이동자(average mover)’와 ‘기능적 활동 목적’이라는 전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시간지리학과 활동공간(activity-space) 연구다. 해거스트란드(Hägerstrand 1970) 이래 시간지리학 전통은 활동공간 연구로 이어지며, 개인의 시공간 궤적을 통해 생활권을 재구성해 왔다. 이 계보에서 주체는 원래의 ‘이동 제약하의 평균적 개인’을 넘어 젠더·계급·생애단계·장애에 따라 서로 다른 시공간 예산을 지닌 이질적 주체로 재개념화되었으며, 개인의 주체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 계보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관계적 생활권과 상당한 접점을 가진다.

넷째, 인지지도와 근린 인식경계, 이동 빅데이터 기반 생활반경 연구다. 린치(K. Lynch)의 도시 이미

는 스마트폰 기반 이동통신 데이터, 카드 결제 로그, LBS(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실측 생활반경’ 연구가 이 계보와 결합하며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원도, 김영룡(2024)이 인구감소지역의 유동인구 통행량을 이동통신 데이터로 분석하여 지역별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를 실증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도시지역과 동일한 거리 기준으로 스마트 축소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네 계보는 방법론적으로 서로 다르며, 특히 셋째와 넷째 계보는 본 논문이 뒤에서 제안할 관계적 생활권의 세 축과 상당 부분 공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비판은 계량적 접근 그 자체를 향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이질적 계보들이 정책적 조작화 국면에서,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시설 재배치 모형과 결합될 때 상당수가 ‘기능적 도달권’이라는 최소공통분모로 수렴한다는 데 있다. 방법론의 다양성이 조작화의 획일성으로 귀결되는 최근의 사조를 본 논문은 인식론적으로 문제 삼는다.

3. 방법론적 이질성 아래에서 공유되는 인식론적 전제

방법론이 이질적임에도 위 계보들이 정책적 조작화에서 자주 공유하는 잠재적 전제는 네 가지다. 첫째, 공간은 등방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분절된 외부성으로 가정된다. 둘째, 주체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평균적 이동자로 축약된다. 셋째, 삶의 단위는 기능적 활동(등하교·통근·의료·쇼핑)의 다발로 환원된다. 넷째, 시간은 이동시간이거나 일과의 배열로 나타나며 세대에 걸쳐 퇴적된 생애사의 시간, 애착과 기억이 쌓아 올린 장소의 시간은 사라진다. 이 전제들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은 이미 1970년대 인간주의 지리학의 비판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Tuan 1977; Relph 1976), 한국 공간계획 실무에서는 충분히 수용되지

않은 채 기술적 갱신만 누적되어 왔다. 문제는 개별 주장의 강도가 아니라 담론상의 관성이다. 정책 문서에서 '생활권'이라는 말이 유통될 때, 그 말은 대개 특정 시물레이션 산출물의 그림을 가리키고 그림 바깥의 층위는 '보완적 참고사항'으로 인식된다.

"측정될 수 없다면 관리될 수 없다"는 관리주의 격언은 공간정책 영역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측정가능성은 결코 중립적 체(sieve)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 측정될 것인가를 미리 선별하며, 이 선별이 세계상(Weltbild), 즉 우리가 '공간'과 '삶'을 어떻게 그리는가의 밑그림을 규정한다. 현행 생활권 모형이 측정에 포섭하는 대상—시설 위치·수, 시간거리, 도달 인구, 인구 구조, 교통 네트워크 속성—은 유용하지만 다음 층위가 통상 빠져 있다. 체험된 공간의 결(같은 1km라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층위), 관계의 지형(어디서 누구를 마주치는가), 시간적 퇴적(내가 자란 길목, 40년 장을 봐온 시장), 의미의 짜임(이 도시가 나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서사)이 그것이다. 이 층위가 배제되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화폐와 시간의 단위로 교환되지 않는 잔여이기 때문이다.

4. 소결

현행 생활권 개념은 계산가능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념 자체를 '작게 잘라낸' 결과물이다. 이 개념은 공간정책의 기능적 과제에 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생활권이 약속하는 '삶의 권역'이라는 본래 의미에는 모자란다. 빈곤한 개념은 빈곤한 정책을 낳는다. 지방의 시설을 재배치하면서도 왜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지, 접근성 지수가 개선되어도 왜 '살 만한 곳'이라는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은 개념의 빈곤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 다음 세 장은 이 재검토에 필요한 이론자원을 삼각측량 방식으로

동원한다. 생활권의 두께는 ① 체험의 차원, ② 사회적 관계의 차원, ③ 구조적 공간생산의 차원에 걸쳐 있으며, 어느 한 계보만으로는 그 두께를 회복할 수 없다.

III. 생활세계로서의 생활권

III장은 II장의 인식론적 재검토가 요구한 이론자원을 세 계보에서 삼각측량 방식으로 동원한다. 1절은 현상학적 자원으로 생활권을 '체험된 공간'에서 재정착시키고, 2절은 생활세계 사회학과 관계적 장소론으로 이를 '사회적 관계의 지형'으로 확장하며, 3절은 비판적 공간사회학과 인간주의 지리학으로 이를 '생산되는 공간'과 '관계의 결절점'으로 재편한다. 각 절 말미에 문학 삽화를 배치하여 이론 언어가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권의 감각적 결을 점검한다.

1. 현상학적 재정착

1) 후설의 Lebenswelt: 과학 이전의 토대

에드문트 후설(E. Husserl)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1936/1997)에서 근대 수학적 자연과학의 '이념화(Idealisierung)'가 그 성공으로 인해 이념화 이전의 세계, 즉 '생활세계(Lebenswelt)'를 망각했다고 진단한다. 이념화된 세계는 "모든 학문의 의미의 토대"인 생활세계를 전제하지 대체하지 않는다(Husserl 1936/1997). 생활권 시물레이션 모형군은 공간정책 영역의 '갈릴레이적 이념화'이며, 담론이 축적되면서 이념화된 재현이 재현되는 세계 자체와 혼동된다. 후설의 '고향세계(Heimwelt)/낯선세계(Fremdwelt)' 구분(Husserl 1973)에서 생활권은 일차적으로 고향세계, 즉 '내가 묻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곳'의 문제이지 '시설이 닿는 곳'의 문제가 아니다.

2) 하이데거의 거주함(Wohnen)과 장소의 존재론

마르틴 하이데거(M. Heidegger)는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1954/2008)에서 "인간으로서 있다는 것은 곧 거주한다는 것"이라는 тезис에 도달한다. 거주는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사방(das Geviert)—하늘과 대지, 신적인 것들과 가사자들—을 아끼고 지키는 것이며, 인간은 시설이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자신이 마련한 관계망 안에 산다. 교량, 나무, 집, 무덤, 경계, 시장은 저마다 '장소(Ort)'를 규정하는 사물이며, 생활권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현상은 이 '모음'으로 성립한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이 다루는 대상이 좌표점의 집합이 아니라 누군가 거주해 온 장소들의 네트워크임을 존재론적 심층에서 환기한다.

3) 메를로-퐁티와 볼노프의 신체·집·방향성

모리스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1945/2002)은 공간을 '신체적 공간'으로 복원한다. 공간은 '데카르트적 확장(res extensa)'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corps vécu)'가 세계와 맺는 관계성이며, 임산부·휠체어 이용자·시각장애인의 1km는 서로 다른 1km이고, 밤길의 여성에게 가로등 꺼진 공원은 물리적 접근성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프(O. F. Bollnow)의 『인간과 공간』(1963/2011)은 공간을 '체험한 공간(erlebter Raum)'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집(Haus)—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자 되돌아오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직됨을 보인다. 지금 이 시점의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는 접근성 지표는 높지만 볼노프적 '집'의 감각적 두께는 얇아지고, 1인가구의 생활반경은 넓어지지만 각 지점의 신체적 정착은 낮다.

4)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과 내밀성의 지형학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의 『공간의 시학』(1957/2003)은 집의 다락·서랍·구석 같은 미시 공간을 주제로 '내밀한 공간(l'espace intime)'이 기억·몽상·존재감의 결합으로 짜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간은 측정되기 전에 상상되며 그 상상이 그곳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만든다. 생활권의 가장 작은 중심은 옷장 서랍이거나 부엌 한구석일 수 있으며, 아파트 발코니·지하철 정기 이용 좌석·카페의 창가 자리처럼 오늘의 도시적 삶에서도 이러한 미시적 정착점은 여전히 만들어진다.

5) 문학 삽화 ①: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의 자전적 장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는 서울 현저동·개풍군 박적골을 잇는 두 세계의 생활권 현상학이다. 화자에게 서울은 학교·전차·양과점의 세계이지만 박적골은 싱아 줄기와 언덕, 할머니의 치맛자락과 외할머니의 울안으로 이루어진 내밀한 생활권이다. 작가는 그 세계의 균열이 자신의 생애 첫 근대 경험이었음을 암시한다(박완서 1992). 이 작품에서 생활권은 시설의 목록이 아니라 언덕의 기울기, 풀의 신맛, 부엌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의 냄새로 구성되며, 하이데거의 사방,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공간, 바슐라르의 내밀한 공간이 한국 근대의 구체 속에서 어떻게 현상하는지를 이 텍스트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많지 않다.

2. 공동체와 일상의 지평

1)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게젤샤프트

페르디난트 퇴니스(F. Tönnies)의 『공동사회와 이익

사회』(1887/1982)는 본질의지에 기반한 유기적 결합인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선택의지에 기반한 계약적 결합인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구분한다. 그의 공로는 동일한 공간적 근접성이 두 결합유형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통찰에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실상 계약적 관계만 존재한다면 물리적 근접에도 불구하고 게마인샤프트적 생활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역으로 분산된 지리적 공간 위에서도 디아스포라적 공동체는 게마인샤프트적 요소를 유지할 수 있다. 생활권의 사회학적 질은 근접성 자체가 아니라 근접성 위에 구성되는 '결합의 질'에 달려 있다.

2) 게오르그 짐멜의 '대도시와 감각 과부하'

게오르그 짐멜(G. Simmel)의 「대도시와 정신적 삶」(1903/2005)이 관찰한 현상은 자극 과잉으로 인한 지성의 방어적 응축이다. 대도시인은 익명 군중 속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계산적·지적 태도를 발달시키며, 그 익명성이 유례없는 자유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생활권의 밀도와 네트워크 연결성이 증가할수록 주체는 방어적 응축을 강화하며,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관계성이 자동 증가하지 않는다. 콤팩트 시티가 물리적 밀집을 옹호할 때 그 밀집이 짐멜적 방어기제를 어떻게 동원할지를 묻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초고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 인사가 드문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얼굴 모르는 이웃들이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풍경은 짐멜의 진단이 다른 매체 위에서 반복됨을 보여준다.

3) 알프레드 슈츠의 '손에 닿는 세계'

알프레드 슈츠(A. Schütz)는 『사회세계의 의미적 구성』(1932/1967)과 루크만과의 공저 『생활세계의

구조』(1973)에서 후설의 생활세계를 접근 가능성의 층위로 세분화한다. '손에 닿는 세계', '회복 가능한 도달 범위', '도달 가능 범위'가 그것이다. 콤팩트-네트워크의 도달권이 '도달 가능 범위'에 상응한다면 그것이 놓치는 것은 나머지 두 층위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정착한 사람에게 '고향의 생활권'은 '회복 가능한 범위'의 문제이며, 이 층위 없이는 많은 한국인의 실제 생활권을 이해할 수 없다. 슈츠의 '유관역(有關域, relevance structure)'—생활세계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게 관계되어 들어오는가의 구조—또한 결정적이다. 한 도시의 생활권은 수많은 개별 유관역이 겹쳐 형성되는 그물망(mesh)이다.

4) 위르겐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이론』(1981/2006)에서 근대 사회를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의 이원 구조로 분석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체계는 화폐·권력에 의해 작동하며, 근대의 병리는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화(Kolonisierung der Lebenswelt)'하는 데서 발생한다. 데이터 분석기술에 바탕을 둔 공간정책은 행정-기술 체계의 조정 매체가 생활세계로 투영되는 과정이며, 문제는 이 투영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자율성이 체계의 언어로 재정의됨으로써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을 이야기할 때 체계의 문법을 빌려야만 발언권을 얻게 되는 구조에 있다.

5) 퍼트남과 올든버그의 '사회자본과 제3의 장소'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의 『나 홀로 불링』(2000/2009)이 기록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개인 간

의 연결과 호혜성·신뢰의 규범—의 붕괴는 생활권의 사회학적 건강이 시설 개수가 아니라 반복적·비공식적 만남의 빈도와 질로 측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레이 올덴버그(R. Oldenburg)의 『대단히 좋은 장소』(1999)는 집·일터 외에 ‘제3의 장소(third place)’—비공식적·평등주의적이고 대화가 중심이며 정기적 방문자가 있는 동네 공공 공간—의 필수성을 논한다. 그 가치는 ‘있다’가 아니라 ‘오래 있다’에 있어 콤팩트-네트워크의 시설 범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 20년 된 동네 빵집이 프랜차이즈로 교체되어도 시설 목록은 변화 없지만 사회자본은 결정적 상실을 겪으며, 한국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무인 매장 확산·노포 소멸이 그 현실상이다.

6) 문학 삽화 ②: 이문구 『관촌수필』

이문구의 연작 『관촌수필』(1977)은 충남 관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국 근대화가 공동체적 생활권에 새긴 자국을 서정적·해학적 문체로 그려낸다. 첫 작품인 『일락서산(日落西山)』의 화자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옛 마을의 변모를 목도한다. 과거의 관촌은 집성촌적 친족관계, 두레와 품앗이, 장터와 당산나무, 무덤과 서낭당이 유기적으로 엮인 게마인샤프트적 생활권이었다. 작가는 그 풍경을 탄식이 아닌 구체적 감각으로 불러오며, 그 뼈대가 무너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곧 공동체적 생활권의 마디가 분절되는 순간이다(이문구 1977). 관촌의 해체는 이농, 산업화, 도로 개설, 언어의 변화(표준어가 방언을 덮어버리는 과정)까지 다층의 변동이 맞물린 결과이며, 이 작품이 기록하는 생활권의 상실은 감상적 향수가 아니라 하버마스의 ‘체제의 식민화’가 한국 농촌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문학적 보고서다.

3. 공간 생산과 관계적 장소

1) 앙리 르페브르의 ‘삼원 변증법적 공간’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의 『공간의 생산』(1974/2011)은 공간을 ‘생산되는 것’으로 재정의하며 세 가지로 구분한다. ‘지각된 공간(l'espace perçu)’은 물리적 공간과 신체적 루틴, ‘구상된 공간(l'espace conçu)’은 설계자의 지도와 모형, ‘체험된 공간(l'espace vécu)’은 이용자가 상징과 이미지로 살아내는 저항·전유의 공간이다. 생활권에 적용하면 주민의 아침 산책·통근길·시장 보기는 ‘지각된 생활권’, 시뮬레이션 모형은 ‘구상된 생활권’, 주민이 폐교 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할 때 그것은 ‘체험된 생활권’이다.

정책담론의 위험은 구상된 공간이 나머지 둘을 전제화하는 경향이며, 르페브르는 이를 “재현의 독재”라 부르며 이때 공간은 ‘추상공간(abstract space)’으로 변형되어 차이를 흡수한다고 경계했다.

2) 미셸 드 세르토의 ‘전략과 전술’

미셸 드 세르토(M. de Certeau)의 『일상생활의 실천』(1980/1984)은 르페브르와 상보적이다. 그는 권력이 ‘전략(stratégie)’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데 대해, 일상을 사는 주체가 ‘전술(tactique)’로 그 구획을 교란·전유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공식 생활권과는 별개로 실제 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술적 생활권이 있다—노인의 매일 아침 산책길, 청소년이 친구를 만나는 비공식 장소, 배달 라이더가 대기하는 골목의 편의점 앞. 이들은 공식 생활권 지도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생활권의 결정적 부분을 차지한다.

3) 데이비드 하비와 도린 매시의 '관계적 공간'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1989/2008)은 후기 자본주의의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분석한다. 교통·통신의 가속과 자본 회전의 압축은 장소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며, 특정 지역은 압축에 포섭되고 특정 지역은 방치·유기된다. 즉 하비는 생활권의 시간적 두께(축3)가 자본 회전의 가속 속에서 왜 얇아지는지, 그 얇아짐이 왜 중심부의 하이퍼-압축과 주변부의 유기(수도권 집중·지방 소멸)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반면 도린 매시(D. Massey)의 「장소의 전지구적 감각」(1991)과 『공간을 위하여』(2005/2016)는 '장소'를 경계 지어진 고정체가 아니라 관계의 교차점으로 재정의한다. 매시의 '관계적 장소'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관계적 생활권'의 직접적 이론 배경이다. 생활권은 자체 경계 안에 완결된 단위가 아니라 가족 송금, 이주 이력, 자본 투자, 행정 지시, 언론 이미지, 오늘날에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배달하는 상품과 콘텐츠까지 특정하게 엮여 들어온 지리적 절절이다.

4) 에드워드 소자와 장소 이론의 전개

에드워드 소자(E. Soja)의 『제3공간』(1996/2019)은 르페브르의 삼원 변증법을 포스트구조주의적 문화정치학으로 확장하며, 실재와 상상·물리와 사유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제3공간(Thirdspace)'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주의 지리학의 계보는 장소 경험의 현상학에 집중한다. 투안(Yi-Fu Tuan)의 『공간과 장소』(1977/2020)는 공간(space)이 개방과 자유의 이름이라면 장소(place)는 애착·안전·정체성의 이름이라 보며, 인간이 반복적 경험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장소가 됨을 보인다. 이는 관계적 생활권이 왜 시간적 두께를 필요로 하는지를 뒷받침한다. 렐프(E. Relph)의 『장소와 장소상실』(1976/2005)은 획일화된 교외·쇼핑몰·테마파크 같은 '어디에도 없는 곳'의 증식을 '장소상실(placelessness)'로 진단하며 진정한 장소 경험의 상실이라는 근대적 병리를 지목하는데, 이 진단은 표준화된 아파트 단지과 프랜차이즈가 지배하는 오늘의 상권에도 유효하다. 팀 크레스웰(T. Cresswell)의 『장소: 짧은 입문』(2004/2012)은 이 계보를 종합하며 장소를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자 실천으로 재개념화한다.

5) 문학 삽화 ③: 황석영 『삼포 가는 길』

황석영의 단편 「삼포(森浦) 가는 길」(1973)은 한국 근대 공간재편의 문학적 정조를 응축한다. 공사판을 떠도는 영달, 교도소를 나와 고향 삼포로 향하는 정 씨,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백화—세 인물은 눈 내리는 국도에서 만나 함께 걷는다. 정 씨는 삼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포구, 어선, 뱃일과 밭일이 섞인 삶. 그러나 노인이 무심코 전하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삼포에는 이미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어 섬이 육지가 되고 관광·개발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황석영 1973).

정 씨가 돌아가고자 했던 삼포는 이미 삼포가 아니며, 그 삼포는 르페브르가 말한 추상공간의 한국적 변주에 의해 소거되고 있다. 개발과 관광이 기존 생활권을 밀어내고 데이터로 정의된 추상적 격자를 부설하는 순간, 정 씨의 고향은 지도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사라진 장소가 된다. 눈 내리는 들판의 세 인물이 서로에게 잠시 '임시의 생활권'을 마련했다가 이별하는 장면은 드 세르토의 전술적 실천의 문학적 형상이다.

4. 소결

세 계보의 자원은 서로 다른 어휘로 하나의 존재론적 지형을 지시하며 각기 관계적 생활권의 한 축으로 결정(結晶)된다. ‘특정한 몸이 특정한 감각적 결을 가진 지평 안에서 물음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현상학은 접근성 지수로 대체될 수 없는 층위, 곧 첫 번째 축 신체적 정착성으로 결정된다. 생활권이 시설 도달 이전에 결합의 중첩으로 규정된다는 사회학적 진단—퇴니스의 결합유형(관계의 질), 짐멜의 방어적 응축(연결성과 관계성의 구분), 슈츠의 유관역(회복 가능한 범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정책 언어의 규범 조건), 퍼트남·울든버그의 사회자본·제3의 장소(측정 가능한 지표)—은 두 번째 축 관계적 확장성으로 결정된다. 생활권을 시간의 함수로 취급하는 비판적 공간사회학·인간주의 지리학—르페브르의 삼원 변증법(재현의 독재 견제), 드 세르토의 전술(주민에 의한 재정의), 하비의 시공간 압축(두께의 불균등한 소진), 매시의 관계적 장소(열린 결절), 소자·투안·렐프·크레스웰의 장소(시간의 축적)—은 세 번째 축 시간적 두께로 결정된다.

IV. ‘관계적 생활권’이란 대안적 재정의

III장의 삼각측량으로부터 도출된 세 축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관계적 생활권(Relational Living-Sphere, 關係的生活圈)’ 개념틀을 제안한다. 이는 현행 기술적 생활권의 대체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는지를 가시화하는 인식론적 발판이다. 본 장은 세 축의 정의(1절), 결합 원리와 그 시각화(2절), 정책적 재정책(3절), 도시기본계획 프로세스와의 접합(4절)을 차례로 다룬다.

1. 관계적 생활권의 세 축

1) 신체적 정착성(Embodied Rootedness) - 축1

인간은 추상적 좌표가 아니라 특정한 몸으로 특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산다. 구성요소는 신체적 접근성의 질적 차원(밤길, 경사, 보도, 소음, 안전감), 집과 동선의 친숙함, 감각적 접점(바슬라르적 ‘작은 중심’)이다. 부분적으로 측정될 수는 있으나 핵심은 지표 추가가 아니라 몸을 가진 주체가 정책의 기본 단위로 전제되는 개념의 전환이다.

2) 관계적 확장성(Relational Extensibility) - 축2

매시의 ‘관계적 장소’, 슈츠의 ‘유관역’, 퍼트남의 ‘사회자본’, 울든버그의 ‘제3의 장소’가 여기 집결한다. 구성요소는 반복적·비공식 만남의 층위(단골 가게, 경로당, 시장 골목), 원거리 관계의 유관역(떠나온 고향, 원격근무로 매개되는 관계), 외부 힘과의 결절성(전지구적·국가적 흐름과의 엮임)이다. ‘얼마나 잘 연결되는가’보다 ‘관계를 어떻게 품고 있는가’를 묻는다. 연결성(connectivity)과 관계성(relationality)은 다르다.

3) 시간적 두께(Temporal Thickness) - 축3

생활권은 단 하나의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 애착, 세대 중첩, 미래 기대의 퇴적물이다. 구성요소는 개인적 생애사의 퇴적, 세대 간 기억의 승계, 공동체적 서사의 지속, 미래 상상의 지평이다. 시간적 두께는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축이며 가장 강력한 축이기도 하다. 이것이 상실될 때 사람들은 형식적 조건이 유지되어도 ‘살 수 없다’고 느낀다.

2. 세 축의 결합원리와 상호관계

세 축은 서로 다른 지적 계보에서 도출되었지만 하나의 개념틀로 묶인다. 그 결합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세 축은 각기 다른 시간척도에서 동일한 존재론적 사태의 상이한 형상이다. 신체적 정착성은 '하루의 리듬' 위에서 주체가 몸을 통해 특정 장소에 놓이는 사태를, 관계적 확장성은 '주와 년의 리듬' 위에서 반복되는 만남이 사회적 결합을 형성하는 사태를, 시간적 두께는 '세대의 리듬' 위에서 그 결합이 서사와 기억으로 퇴적되는 사태를 다룬다. 세 축은 서로 다른 시간척도의 형상이지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니다.

이 결합 원리로부터 세 축의 상호 의존이 도출된다. 신체적 정착성 없이 관계적 확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몸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리에서는 반복적 만남 자체가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적 확장성 없이 시간적 두께는 개인적 향수로 축소되고, 시간적 두께 없이 관계적 확장성은 휘발한다. 이 상호 의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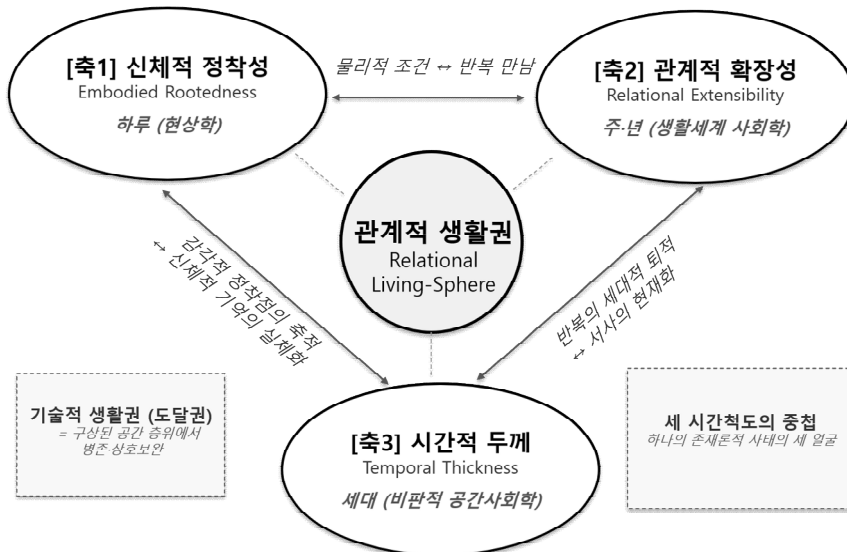
세 축을 함께 다루지 않는 정책이 왜 실패하는지도 설명한다. 시설 배치를 최적화한 재개발은 축1과 축3을 침식함으로써 축2를 함께 약화시키며, 마을 축제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축2에 초점을 두지만 축1·축3을 함께 다루지 못하면 일회성으로 소진된다. 세 축의 결합 구조와 시간척도의 중첩은 <그림 1>로 시각화하였고, 각 축의 구성요소·이론자원·상호 결합 조건은 <표 1>에 정리하였다.

3. 정책적 재정착

혹여 관계적 생활권 개념틀이 기술적 모형의 대체인 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 질문에 저자는 그것은 잘못된 이분법적 접근이라고 답하고 싶다.

본 논문은 두 접근을 위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 모형은 구상된 공간의 층위에서 유용하지만 지각된·체험된 공간의 층위를 대표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하며, 관계적 생활권 개념틀은 이 명시를

그림 1 관계적 생활권의 3축 구조와 시간척도



주: 세 축은 서로 다른 이론 전통에서 도출되었으나 하나의 존재론적 사태를 서로 다른 시간척도에서 지시함. 축 간 화살표는 상호 의존과 결합 조건을 나타냄.

표 1 관계적 생활권 3축의 시간척도와 상호 결합

축	시간척도	주요 이론자원	이론적 조상	대리 지표 (예시)	다른 축과의 결합 조건
축1 신체적 정착성	하루	현상학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볼노프, 바슐라르	보행환경 질, 야간 조도, 안전감, 장소 애착도	축2 성립의 물리적 조건
축2 관계적 확장성	주·년	생활세계 사회학·관계적 장소론	슈츠, 하버마스, 퍼트넘, 울든버그, 매시	제3의 장소 밀도, 사회자본, 반복 만남 빈도	축1을 매개, 축3의 재료 제공
축3 시간적 두께	세대	비판적 공간사회학·인간주의 지리학	르페브르, 하비, 매시, 소자, 투안, 엘프	거주기간 분포, 세대 간 거주 연속성, 서사 보존도	축2의 반복이 세대 단위로 되적된 결과

강제하는 발판이자 기술적 모형 바깥의 차원이 다른 방법(문화기술지, 구술사, 참여적 매핑, 문학 비평)으로 보완된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정당화한다. 이 재정착이 오늘의 한국 공간—중심부의 하이퍼-압축과 주변부의 '유기된 시공간'이 공존하는 극단적 수도권 집중 구조(통계청 2023)—에서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의 확장이다. 기존의 시간거리·도달물·시설수 지표에 신체적 정착성(보행환경, 안전감), 관계적 확장성(제3의 장소 밀도, 사회자본), 시간적 두께(거주기간 분포, 세대 간 거주 연속성, 지역 서사 보존도) 지표가 동등한 가중치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접근성 점수는 높으나 축1·축3이 부재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축1이 좁혀지고 축2가 알고리즘 매개로 재편되어 '도달 시간'보다 '다중 매개의 겹침'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도시 청년층 1인가구의 생활권을 포착하기 위한 조건이다.

둘째, 참여의 질적 전환이다. 형식적 공청회를 넘어 문화기술적 방법론, 구술사, 참여적 지도 그리기가 정책 수립의 정식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정책 체계에 투입하는 경로다. 축1·축2가 얇아지고 축3만이 마지막 정주 자원으로 남은 지방에서 그 축3이 정책에서 가장 무시되는 상황을 바꾸려면 주민의 서사가 체계의 문법 없이도 발언권을 얻는 절차적 조건

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의 윤리다. 콤팩트화·네트워크화의 재편이 불가피할 때 이행의 서사가 계획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며, 이는 '상실되는 장소의 기억을 새로운 공간배치에 어떻게 이식·보존할 것인가'라는 공적 책무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축3을 파괴하는 방향—전면 재개발, 노포와 근린 커뮤니티를 우회하는 대형 거점 신설—으로 설계될 때 지키려 했던 것마저 함께 소거된다는 역설이 이 책무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넷째,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제도화와 언어의 정비다. 계량적 모형 중심의 연구·평가 체계에 인문학·문화연구·구술사·참여적 연구의 전문가가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원적 평가 체계가 요구되며, "도달권으로서의 생활권", "관계적 생활권", "체험된 생활권" 등 층위를 구분하는 언어 습관이 정책 담론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 지방·아파트 단지·1인가구가 접근성 지수로만 측정될 때는 서로 다른 처방이 도출되지만 세 축의 언어로는 공통된 진단—세 축 중 최소 하나가 얇아져 다른 두 축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진단—이 가능해지므로, 언어의 정비는 단순한 용어 규율이 아니라 사고의 재편이다.

4. 도시기본계획 프로세스와의 접합

관계적 생활권 개념들이 실무 프로세스와 접합될 수 있는 지점을 예시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며, 이는 조작화의 완결이 아니라 담론적 재검토가 프로세스로 이행하는 경로의 예시적 스케치다. 도시기본계획의 표준적 프로세스는 대체로 현황조사, 생활권 설정, 시설 배분, 모니터링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정량모형과 관계적 생활권 3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분업·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표 2>는 그 분업 구조를 예시한다.

이 구조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3축의 역할은 정량모형의 '보완 참고자료'가 아니라 '동등한 진단 층위'이며, 2단계에서 주민 인식경계와 정량적 도달권이 크게 어긋나는 지점 자체가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시사한다. 둘째, 4단계에서 3축 지표는 반드시 종적(longitudinal) 관찰을 요구하며 세대의 시간적도를 갖는 축3은 특히 그렇다. 셋째, 프로세스 전반에서 하버마스적 의미의 '주민의 의사소통적 자율성'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분업 구조는 아직 조작적 세부(indicator design)가 완결되지 않은 예시적 스케치이며, 본 논문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속 조작화 연구가 요구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데이터 분석 기반 생활권 개념의 존재론적·사회학적 빈곤을 논증하고, 그 대안으로 관계적 생활권의 세 축—신체적 정착성, 관계적 확장성, 시간적 두께—을 제안하였다. 세 축의 결합 원리는 하루·년·세대의 세 시간척도 공존으로 정식화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네 단계 프로세스에서 정량모형과의 분업·상호 보완 관계에 대한 예시적 스케치가 제시되었다.

본 논문의 논의는 담론의 인식론적 재검토에 초점이 있으며 조작적 지표의 완성이나 실증 검증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이 한정은 방기가 아니라 방법의 자각이다. 담론 없이 지표만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근본 동기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측정의 엄밀성을 지키기 위해 '측정이 놓치는 것을 또한 엄밀하게 이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름 없이는 존재도 없다.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은 한국이 처한 인구·재정 조건에서 피할 수 없는 경로이지만, 지금의 개념적 빈곤 위에서 전개될 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지역의 활력 소실, 지방 소멸, 공동체의 해체—를 오히려 가속할 위험이 있다.

후속 과제는 세 축의 조작화, 도시기본계획 프로세

표 2 도시기본계획 4단계와 정량모형·3축의 분업·상호 보완

단계	정량모형의 역할	관계적 생활권 3축의 역할	두 층위의 접합 방식
1. 현황조사	인구·이동·시설·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접근성 지수 산출	구술사·인식지도·장소앵착·서사 조사, 아파트/1인가구/노포 사례 심층조사	정량 지도 위에 3축 조사 결과를 오버레이하여 '진단 이중지도' 작성
2. 생활권 설정	시간거리·네트워크 도달권 산출, 잠재적 권역 후보 도출	주민 인식경계·유관역 매핑, 노포와 제3의 장소 클러스터 확인	정량 후보 권역을 3축 결과로 검증·조정 (경계선의 존재론적 두께 점검)
3. 시설 배분	임계인구·최적입지·비용효율 산출	신체적 정착성 우선(보행환경·안전감)·제3의 장소 보호·서사 지속 요건 삽입	정량 최적안을 3축 요건과 대조하여 '차선의 정착 가능성' 결정
4. 모니터링	도달률·이용률·서비스 격차 지수 갱신	사회자본·서사 지속성·거주기간 분포 추적, 종적 심층조사 반복	정량 지표의 변동과 3축 지표의 변동을 병렬 모니터링, 상호 상관 분석

스로의 실질적 이식, 서로 다른 지역 유형에서 세 축이 어떻게 변주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다.

황석영의 정 씨가 삼포로 돌아갈 수 없듯 우리는 잃어버린 생활권을 있는 그대로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씨와 영달과 백화가 눈 내리는 들판에서 잠시 만들어낸 임시의 생활권—그 손잡이 같은 동행—은 가능하다. 관계적 생활권이 해야 할 일은 정책이, 계획이, 우리의 공간 담론 전체가 다시 한번 그 동행의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일을 돕는 것이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강재원, 조진희, 심용주, 박선옥, 윤성민. 2022. 중심지위계별 통행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한 지방중소도시 생활권 설정 연구: 나주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57권, 3호: 38-51.
Kang Jaewon, Jinhee Jo, Yongju Shim, Sunok Park and Seongmin Yoon. 2022. A Study on the Analysis of Neighborhood Unit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y Applying Traffic Network Analysis by Central Hierarchy: The Case Study of Naju Cit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7, no.3: 38-51. DOI 10.17208/jkpa.2022.06.57.3.38
2. 권규상, 다무라 후미노리, 김영룡. 2018.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Kwon Kyusang, Fuminori Tamura and Young-Long Kim. 2018. *Strategy and Practice in the Compact and Network City Policy*. Sejong: KRIHS.
3. 김형준. 2023. 15분 도시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6호: 134-139.
Kim, Hyoung-Jun. 2023. A Study on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the 15-Minute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 no.6: 134-139. DOI: 10.5762/KAIS.2023.24.6.134
4. 박완서. 199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서울: 웅진출판.
Park, Wansuh. 1992. *Who Ate Up All the Shinga?* Seoul: Woongjin Publishing.
5. 성은영, 임유경, 윤주선.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Seong Eunyoung, Yookyoung Lim and Zoosun Yoon. 2015. *Shrinking Smart: Strategies and Planning for Revitalization of Shrinking Communities*. Sejong: AURI.
6. 신지영. 202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II).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Shin Ji-young. 2021. *Sustainable Urban Models and Planning Strategies for Smart Shrinking Cities (II)*. Sejong: KEI.
 7. 신학철, 우명제. 2022. 도시권 특성이 축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7권, 6호: 25-36.
Shin Hakcheol and Myungje Woo. 2022.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Regions on Shrinking Citie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7, no.6: 25-36. DOI: 10.17208/jkpa.2022.11.57.6.25
 8.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1-20.
Oh, Byung-rok. 2012. A Study on Neighborhood Unit Theory and the Reality of Neighborhood Unit Planning: Focused on Neighborhood Unit Planning in Master Plans. *Seoul Studies* 13, no.4: 1-20.
 9. 이문구. 1977. 관촌수필. 서울: 문학과지성사.
Yi, Munku. 1977. *Gwanchon Essays*. Seoul: Moonji Publishing.
 10. 이용균. 2024. '15분 도시'의 핵심 개념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7권, 3호: 31-44.
Lee Yong Gyun. 2024. A Critical Review of the Core Concept and Practice of '15-Minute C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7, no.3: 31-44. DOI: 10.21189/JKUGS.27.3.3
 11. 이원도, 김영룡. 2024. 인구감소지역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20권: 117-133.
Lee Won Do and Young-Long Kim. 2024. Variation in Spatial Extent of Daily Activity Spaces across Shrinking Regions in South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20: 117-133. DOI: 10.15793/kspr.2024.120..007
 12.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대전: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3. Population Projections: 2022-2072. Daejeon: Statistics Korea.

13. 황명화, 임은선, 이보경, 이보라, 신휴석. 2025.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위한 생활권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Hwang Myeonghwa, Eunseon Lim, Bokyoung Lee, Bora Lee and Hyuseok Shin. 2025. *The Development of a Simulation Model for Living Zone Changes in Depopulating Regions under the Compact-Network Strategy*. Sejong: KRIHS.
14. 황석영. 1973. 삼포 가는 길. 신동아 9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Hwang, Sokyong. 1973. *The Road to Sampo*. *Shin Donga*, September. Seoul: Dong-A Ilbo.
15. Bachelard, G. 2003.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1957. 서울: 동문선.
Bachelard, G. 2003. *The Poetics of Space*. trans. Kwak Kwangsu. 1957. Seoul: Dongmunseon.
16. Bollnow, O. F. 2011.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1963. 서울: 에코리브르.
Bollnow, O. F. 2011. *Human Space*. trans. Lee Gisuk. 1963. Seoul: Ecolivres.
17. Cresswell, T. 2012. 장소: 짧은 입문. 심승희 역. 2004. 서울: 시그마프레스.
Cresswell, T. 2012. *Place: A Short Introduction*. trans. Shim Seunghye. 2004. Seoul: Sigma Press.
18. Habermas, J.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장춘익 역. 전2권. 1981. 서울: 나남.
Habermas, J. 2006.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rans. Jang Chunik. 2 vols. 1981. Seoul: Nanam.
19. Harvey, D. 2008.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박영민 역. 1989. 서울: 한울.
Harvey, D. 2008.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trans. Koo Donghoe and Park Youngmin. 1989. Seoul: Hanul.
20. Heidegger, M. 2008.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1954. 서울: 이학사.
Heidegger, M. 2008.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Vorträge und Aufsätze*, trans. Lee Kisang, Shin Sanghee and Park Chankuk. 1954. Seoul: Ehaksa.
21. Husserl, E.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이종훈 역. 1936. 서울: 한길사.
Husserl, E. 1997.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rans. Lee Jonghoon. 1936. Seoul: Hangilsa.
22. Lefebvre, H.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1974. 서울: 에코리브르.
Lefebvre, H. 201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Yang Yeongran. 1974. Seoul: Ecolivres.
23. Massey, D. 2016. 공간을 위하여.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05. 서울: 심산.
Massey, D. 2016. *For Space*. trans. Park Kyunghwan, Lee Youngmin and Lee Yonggyun. 2005. Seoul: Simsan.
24. Merleau-Ponty, M. 2002.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1945. 서울: 문학과지성사.
Merleau-Ponty, M. 200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Ryu Euijeun. 1945. Seoul: Moonji Publishing.
25. Putnam, R. D. 2009. 나 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역. 2000. 서울: 페이퍼로드.
Putnam, R. D. 2009.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rans. Jung Seunghyun. 2000. Seoul: Paperroad.
26. Relph, E.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1976. 서울: 논형.
Relph, E.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trans. Kim Deokhyun, Kim Hyunju and Shim Seunghye. 1976. Seoul: Nonhyung.
27. Simmel, G. 2005.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1903. 서울: 새물결.
Simmel, G. 2005.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Reading Simmel's Modernity*, trans. Kim Deokyoung and Yoon Miae. 1903. Seoul: Saemulgyul.
28. Soja, E. 2019. 제3공간. 이성백·남영호·도승연 역. 1996. 서울: 시각과언어.
Soja, E. 2019. *Thirdspace*. trans. Lee Seongbaek, Nam Youngho and Do Seunghyeon. 1996. Seoul: Sigakgwaeono.
29. Tönnies, F. 1982.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황성모 역. 1887. 서울: 삼성출판사.
Tönnies, F. 1982.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rans. Hwang Seongmo. 1887. Seoul: Samsung Publishing.
30. Tuan, Yi-Fu. 2020. 공간과 장소. 윤영호·김미선 역. 1977. 서울: 사이.
Tuan, Yi-Fu. 2020. *Space and Place*. trans. Yoon Youngho and Kim Miseon. 1977. Seoul: Sai.
31. Christaller, Walter. 1966. Central Places in Southern Germany. trans. Baskin, C. W. 193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2. de Certeau, Michel.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Rendall, S. 198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3. Hägerstrand, Torsten.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no.1: 7-21.
34. Husserl, E. 1973.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3 vols. Husserliana XIII-XV. The Hague: Martinus Nijhoff.
35. Massey, Doreen. 1991. *A Global Sense of Place*. *Marxism Today*, June: 24-29.
36. Oldenburg, Ray. 1999. *The Great Good Place*. 3rd ed. New York: Marlowe & Company.
37.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38. Schü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 Walsh, G. and Lehnert, F. 1932.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39. Schütz, A. and Luckmann, T. 1973. *The Structures of the Life-World*, vol.1. trans. Zaner, R. M. and Engelhardt, H. T. 1973.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40.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 논문 접수일: 2026. 4. 18.
 - 심사 시작일: 2026. 7. 20.
 - 심사 완료일: 2026. 9. 2.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감소 대응 공간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한 ‘생활권(生活圈)’이 시간거리·접근성·시설 도달권이라는 계량적 격자로 환원되면서 ‘삶의 권역’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의 논의는 계량모형의 대체가 아니라 ‘생활권 담론의 인식론적 재검토’에 초점을 둔다. 최근 국내 생활권 연구는 중심지이론적 위계, 시간지리학·활동공간, 네트워크 접근성, 인지지도 등 이질적 계보를 활용하지만, 정책 조작화의 국면에서는 대체로 ‘기능적 도달권’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수렴은 생활권의 존재론적 두께를 얇게 한다.

본 논문은 현상학·생활세계 사회학·비판적 공간사회학의 세 계보를 교차하고 문학 텍스트와 아파트 단지·1인가구 등 현재형 사례를 참조하여 ‘관계적 생활권(關係的 生活圈)’ 개념들을 제안한다. 새 개념들은 신체적 정착성·관계적 확장성·시간적 두께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하루·년·세대의 서로 다른 시간척도 위에서 하나의 존재론적 사태의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이 개념들은 계량모형의 존재론적 전제를 가시화하고, 도시기본계획 4단계 프로세스에서 정량모형과 3축의 분업·상호 보완 접합 지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생활권, 관계적 생활권, 공간사회학, 개념들, 철학적·사회학적 재사유